# 약왕보살 전신의 소신공양
〈前身〉 〈燒身〉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㉞ 약왕보살본사품

그때 수왕화(宿王華)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약왕보살이 어떤 보살입니까? 약왕보살은 얼마나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겪었습니까?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간략히 설명해 주시옵소서. 모든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와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하나 아닌 이들과 또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들과 여기 있는 성문의 무리들이 들으면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이 때 부처님이 수왕화보살에게 이르셨다.

"과거 한량없는 항하 모래알 수만큼의 겁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일월정명덕 여래이셨느니라. 그 때 그 부처님께서 일체중생희견(一切衆生喜見)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과 성문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하셨느니라. 일체중생희견보살이 고행을 좋아하여 일월정명덕(日月淨明德)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정진하고 수행하여 일심으로 부처가 되기를 구하여, 1만2000년이 된 뒤에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를 얻을 수 있었느니라. 이 삼매를 얻고 나서 크게 기뻐하여 곧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현일체색신삼매를 얻은 것은 모두 〈법화경〉을 들은 힘 때문이니 내 이제 일월정명덕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그리고 곧 이 삼매에 들어가자 허공에서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와 검은 전단 가루를 비 내리듯 쏟아 내리니 그것이 허공에 가득하여 구름처럼 내려왔다. 이 향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일체중생희견보살이 공양을 마치고 삼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비록 신통력을 나타내어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써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 하고, 곧 여러 가지 향인 전단향, 훈륙향, 도루바향, 필력가향, 침수향, 교향 등을 먹고, 또 첨복(簷蔔)의 꽃 등 여러 가지 꽃에서 짠 향유를 마시기를 1200년이 지나도록 마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또 향유를 몸에 바르고 일월정명덕부처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보배 옷을 몸에 두르고 향유를 붓고 나서 신통력으로 서원을 세워 스스로 몸을 불사르니, 그 광명이 80억 항하 모래알 수의 세계를 비추었느니라. 그 세계에 계시던 부처님들이 이를 보고 한꺼번에 찬탄하면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이것이 진정한 정진이며, 이것이 바로 여래에게 참되고 법답게 공양하는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약왕보살본사품' 중에 나오는 내용의 하나다. 수왕화보살의 물음에 부처님이 약왕보살의 전신(前身)이었던 일체중생희견보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수 겁 전의 일월정명덕여래가 출현했을 때의 이야기다. 과거 겁 전의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가 〈법화경〉 안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초시간적이고 초역사적인 이야기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설해지는 것이다. 모두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뜻을 담고 설해지는 이야기다.

〈법화경〉을 들은 공덕으로 '일체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은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부처님께 꽃공양 향공양을 올리고 다시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한 사례를 소개한다. 향유를 마시고 또 몸에 바른 뒤 온몸을 태웠다는 이야기다.

이 소신공양이 상징하는 뜻은 몸을 태워 일신을 버리고 불법을 소중하게 여겨 목숨을 바쳐 도를 위했다는 신심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다. 〈범망경〉에는 보살도를 닦는 이는 몸을 태우거나 팔, 손가락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해야 한다는 말이 설해져 있다. 〈능엄경〉에는 불상 앞에서 손가락을 태워 숙세의 업장을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공양의 참뜻을 밝힐 때도 약왕의 소신공양의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한다.

약왕보살은 본래 중생의 몸과 마음에 생기는 병을 없애 주겠다는 서원을 세운 보살이다. 약사여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약왕이라는 부처님의 명호도 있다. 〈유마경〉에 나오는 비사사여래가 약왕여래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선종, 불성사상 바탕 둔 범망보살계 중시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㉞ 무상계(無相戒)

동아시아인들은 보리달마(菩提達磨)를 비롯한 선사(禪師)들을 '모든 형식이나 격식을 벗어나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인해 선사들은 깨달음을 중시한 나머지 계율을 경시할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초기 선종(禪宗)에서는 불성 사상에 바탕을 둔 범망보살계(梵網菩薩戒)를 중시했으며, 독자적인 보살계와 수보살계의(授菩薩戒儀)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널리 유행했던 범망계를 수용했지만, 점차 그 세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보살계와 그것을 줄 때 일정한 의식작법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육조(六祖) 혜능(惠能)의 언행을 기록한 책인 〈육조단경(六祖壇經)〉은 동아시아에 널리 유포되어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수많은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돈황본 〈육조단경〉에는 보살계인 무상계(無相戒)와 그것을 줄 때의 의식작법인 오문계의(五門戒儀)가 소개되어 있다. 사실 이 책은 자사(刺史) 위거(韋璩)의 청에 응해 혜능이 소주(韶州)의 대범사(大梵寺)에서 수계(授戒)를 거행할 때 행한 설법을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혜능이 출·재가자를 막론한 모든 불자에게 보살계인 무상계를 줄 때 행한 설법이다.

무상계를 줄 때의 의식작법인 오문계의는 ①귀의자삼신불(歸依自三身佛)의 삼창(三唱), ②사홍서원(四弘誓願)의 삼창(三唱), ③무상참회(無相懺悔)의 삼창(三唱), ④자성삼귀의계(自性三歸依戒), ⑤반야바라밀법(般若波羅蜜法)이다. 물론 여기에 소개된 오문계의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보살계의의 양식에 의한 것이겠지만, 이 의식작법은 매우 간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여기에는 일반적인 보살계의의 중심이 되는 삼취정계(三聚淨戒)나 십중금계(十重禁戒)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야나기다 세이잔(柳田聖山)은 오문계의 가운데 삼신불(三身佛)은 통상의 삼신불과는 순서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삼신불은 청정법신불(淸淨法身佛), 천백억화신불(千百億化身佛), 당래원만보신불(當來圓滿報身佛)이다. 그는 이 부분을 다른 계의(戒儀)에서 청사(請師)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도안(道安)이 맨 처음 제창한 식전주원(食前咒願)의 십불명(十佛名)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즉 십불명 가운데 최초의 청정법신비로자나불(淸淨法身毗盧遮那佛)과 두 번째의 원만보신노사나불(圓滿報身盧舍那佛)을 일괄해서 청정법신불로, 세 번째의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을 천백억화신불로, 네 번째의 당래하생미륵존불(當來下生彌勒尊佛)을 당래원만보신불로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삼신불을 청해서 수계의 계화상(戒和尙)이나 아사리(阿闍梨)가 되게 하는 발상은 기존의 전통을 새롭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삼신불의 순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이전과 다르다. 청정법신불은 태양과 구름에 비유되는데, 청정한 자성(自性)은 번뇌에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청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면 일체 법이 본래 청정한 자성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청정법신불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천백억화신불은 중생을 제도하는 화신불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선하게 하여 지혜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당래원만보신불은 등불에 비유되는데, 등불이 어둠을 제거하고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과 같이 지금의 한 생각이 올바른 것을 보신이라고 한다. 따라서 삼신불은 모두 자성에서 비롯된 하나의 자성불(自性佛)인 줄 알고 귀의하는 것이다. 사실 스스로 삼신불에게 귀의하는 단계에서 청사(請師)와 수계(受戒)가 이미 완료된 것이어서 자수자서(自受自誓)의 경향이 강한 대승계의(大乘戒儀)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⑩ 이 생서 꼭 해야 할 천명(天命)

## 분별없이 자기 마음 바로 보아야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만이 아신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상정등각은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三乘)은 알 수가 없습니다. 3차원을 살고 있는 중생이나 4차원을 살고 있는 중생으로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 '방편품 제2'에서 "내가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의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모든 법을 설명하여 말하지만 이 법은 생각으로 헤아리거나 분별하는 바로는 능히 알지 못하며, 오직 모든 부처님만이 계시어 이에 능히 아시느니라." "사리불 같은 이가 세간에 가득 차서 생각을 다하여 함께 추측하고 헤아릴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능히 측량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지견은 중생의 분별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량광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이라고 합니다.

**나의 참 모습**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무상정등각의 진리는 나의 참모습이며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근원입니다. 나와 일체 세계는 모두 이 근원에서 연기하여 나타난 것이기에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두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당체를 불교에서는 법체, 진여, 법신, 불성(佛性), 일심, 한마음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모든 명칭은 모두 언어적 방편일 뿐입니다. 언어에 속지 말고 이 불생불멸의 영원한 진리의 당체를 바로 깨쳐야 합니다. 이 진리 당체를 깨닫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룩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명(使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 역시도 바로 이 진리의 당체를 깨치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처님 깨달은 무상정등각 영원한 진리**
**무위의 중도만이 깨달음 성취할 수 있어**

**모든 분별 멈추고 자기 마음 바로 보아야**

불자 여러분!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의지해서, 어떤 수행 방편으로써 무상정등각의 깨달음을 성취하셨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수행법이 아니었습니다. 함이 없는 중도적 실천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분별이 없고 조작함이 없는 무위의 중도만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무위의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작함이 전혀 없이 분별없이 그냥 그대로 또렷이 자기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조사님들께서는 "식심견성(識心見性) 자성불도(自成佛道)" 즉 자기 마음을 바로 알고 자기의 본성을 바로 보아야 스스로 불도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허망한 자기 마음을 정신 차려서 분별없이 올바르게 들여다 보십시오. 예로부터 수많은 조사스님들께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중생심을 여의지 않아야 된다"고 조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비록 허망하지만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분별을 모두 멈추고 조작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기만하면 됩니다.

분별이 멈추고 조작함이 없어지고 고요와 또렷함이 조화를 이룰 때, 중생의 지견이 멈추고 무량광의 분별없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때 발현되는 무량광의 무분별지혜는 무엇으로도 이름 붙일 수 없고 표현될 수 없습니다. 특히 3차원의 인식과 4차원의 분별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경지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부터 오온에 대한 집착을 끊고, 복락을 기원하는 불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 태어난 일대사인연을 바로 알아 실천하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무상정등각을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